

사.소.한팀, 로니상 수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리포트]

러브버그의 루머를 밝힌다!

[웹 톤]

사랑과 전쟁: Love & War (feat. Lovebug)



사춘기 소녀소년들의 한 끝! [사.소.한]

진아연, 김승훈, 정서윤, 정예원

(서울 안산초등학교 6학년)

각오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춘기 소인의 한 끝!, '사소한'입니다.

저희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살고 있었던 선량한 학생들이었죠.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진짜뉴스인지 가짜뉴스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허위정보를 직접 찾고 뉴스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보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상금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 매력이자 마력이 저희에게 불굴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김칫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도전하겠습니다.

상금을 쟁취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팩트체크 리포트 🔍

러브버그의 루머를 밝힌다

정재철 기자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러브버그의 루머를 밝힌다고 했는데 루머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와 가까운 곳인 은평구에서는 최근 암수가 한몫으로 돌아다니는 징그럽고도 번식력 강한 벌레가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매미처럼 좋지않는 벌레라는 소문과 민원 때문에 행하는 벌레퇴치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 팩트 체크를 해본다.



최우리 기자

러브버그는 해충인가? 해충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하는가? 박멸하는 것이 생태계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등을 검증하려는 시도 좋습니다.

정재철 기자

생활주변에서 팩트체크할 대상을 찾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레 퇴치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 팩트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나요?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기와 동일한 약을 뿌리고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사소한이 팩트 체크에 나선다!

1. 곤충전문학자 및 환경부 관련 직원 인터뷰(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외)를 한다. 곤충학자의 인터뷰를 통해 러브버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체크하고, 나아가 현재의 현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본다.



최우리 기자

곤충학자를 찾아가려는 접근이 좋습니다.

2. 직접 러브버그를 살펴보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본다.



최우리 기자

실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팩트체크 방법입니다.

3. 혐오스러움과 관련하여, 환경을 진짜 지키기 위해(한 종의 곤충만이 출몰하지 않게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혐오스러움은 잠시 참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본다)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본다.



최우리 기자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는, 러브버그가 해충으로 잘못 오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만, 그 작업이 팩트체크 활동에서는 꼭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4. 러브버그 퇴치 작전으로 선택한 방법들이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임을 증명한단.

5. 러브버그 관련해서 여러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환경에 주는 영향을 비교해 본다.

6. 은평구에 살고 있는 학원 친구들과 이번 기회로 친해져서 러브버그의 실체와 피해를 알아본다.

7. 러브버그처럼 집단으로 갑자기 출현한 비슷한 벌레들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법을 비교한다. 나와있는 해결방법들 중 해결방법이 아닌, 즉 팩트가 아님을 비교하여 증명해 낸다.



최우리 기자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정재철 기자

팩트체크를 하기 위한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너무 목표를 크게 잡다보면 팩트체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망이 커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2~3개 정도로 압축하고 이를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나열한 목표를 전부 이룩하면 더욱 좋겠지요.^{^^}



Q 팩트체크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람은?

- 곤충전문학자
- 환경관련 발표 자료
- 환경관련 논문자료가 있는 외국 사이트



최우리 기자

구글 학술 검색도 유용합니다.

- 지식 관련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



최우리 기자

유튜버 정보보다는 원자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식in의 비슷한 Q&A 사이트



최우리 기자

원자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정재철 기자

팩트체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은 것은 일단 공식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령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간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 가운데 신뢰도가 높고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나 입장문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에 너무 많은 기사와 자료들이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자료가 있다면 공식자료와 함께 이런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체크해보기 ♟



Q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 부모님, 곤충관련 연구학자, 학교 과학 선생님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러브버그의 진실과 잘못된 사람들의 편견 등을 조사해 낸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환경부 직원)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 겉모습을 보고 러브버그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름은 러브버그가 아니다.
- 러브버그라는 표현처럼 내내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우리 기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 현재의 퇴치방법이 퇴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 조치일뿐이라는 것과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환경적 요인으로 때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을 연관지어서 봐야 하는 것도 있다.

정재철 기자

이것은 최근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원인일 수도 있고, 곤충문제를 통해 환경문제로 까지 고민을 넓혀가는 것이기에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Q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일반사람들에게
 - (1) 환경보호와 기상이변을 막기위해 혐오스러움을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 (2) 우리가 제시하는 더 나은 퇴치방법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 이를 통해 더 나은 퇴치방법의 팩트를 찾는데 결론을 모아본다.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실험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 러브버그의 퇴치 방법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해 낸다.

Q 인터넷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요?

- (1) “러브버그 싫다고 방역? 또다른 놈 온다” 곤충 박사의 경고 / 중앙일보 / 이병준기자
- (2) “사랑벌레 퇴치”... 도심속 방역 총력전 / 동아일보 / 사지원 기자
- (3) 사랑스럽지 않은 ‘러브버그’, 구청들도 방역 안간힘 / 헤럴드경제 / 최정호기자
- (4) 유튜브 몰상식. 너무 많아서 익충에서 해충이 되어버린 러브버그 이야기(2022.7.5.)
- (5) 최재천의 아마존 ‘은평구를 습격한 러브버그’(2022.7.16.)

Q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가 있었나요?

IFAS, 러브버그 관련 발표자료



최우리 기자

플로리다대학 식품과학농업연구소(IFAS)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 작성하기

올 여름,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를 강타한 일명 ‘러브버그 사건’

큰 주제의 뉴스거리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우리의 환경에 위기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더욱 관심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러브버그 같은 집단벌레의 출현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했고, 실제로 이 벌레가 붙어 다니면서 계속 교미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모습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닌지, 교미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또, 이 벌레들을 해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해서 발 빠른 방역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TV뉴스에서 살충제로 인해 양봉하는 곳에서 꿀벌이 생명을 잃은 보도를 보고는 정말 살충제가 올바른 해결방법일지도 궁금했습니다.

나아가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만나는 곤충의 등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요즘 가장 큰 환경변화의 문제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때문은 아닐까 그 연결성을 찾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메일로 지면 인터뷰를 요청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는 등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듣고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또 학교 친구들과 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하고 싶어서 설문조사로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소한의 한 끝 팩트 찾기]

1.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익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 다니면서 계속 교미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이다. (사실이 아니다.)

- 붙어 다니면서 내내 번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때로 다니고, 그로 인해 번식력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겉모습 때문에 생기는 고정관념으로 곤충을 보게 된 것이다. 실제로 러브버그라는 표현처럼 내내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미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벌레와 교미를 못하도록 며칠 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것이다.

- 심리적으로는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해충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1년간 지하에서 애벌레로 서식하며, 나뭇잎 분해하고 식물 생장을 돕는 곤충이기 때문에 익충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 또, 자생종(국내 토종 곤충과 유사한 새로운 종)인 털파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생태계에 위협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털파리와 같은 경우에 위생해충이나 농업해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벌레의 이름은 붙어 다니며 계속 교미하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love bug)라고 부른다. (일부 사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실 아님)

- 암수가 붙어 다니는 모습과 때로 출현하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불리지만 실제 이름은 ‘플리시아니악티카’ 이다. 우리말로로는 ‘털파리’라고 부른다.

3. 구청에서는 발 빠른 대처로 러브버그를 박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 현재의 퇴치방법이 퇴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는 것과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살충제 사용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곤충의 대발생은 생물다양성 감소가 원인인데, 살충제 사용은 이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퇴치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이상 현상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깨버리는 생태계 때문에 천적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 친환경적인 퇴치 방법으로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해충의 천적 곤충을 키워서 살포하여 해충을 죽이는 방법)을 가장 많이 권장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해충, 제한된 공간에서만 효과가 높아서 모든 해충에 적용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

4. 러브버그 사건은 환경문제(기후환경의 변화)와 연결지어서 봐야 한다.

(거의 사실이다.)

- 곤충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일명 ‘러브버그 사건’은 지구 가열로 인한 기후위기, 곧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곤충의 개체수가 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곤충은 자체 체온이 없기 때문에 외부 기온에 의해서 자기 체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성장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곤충의 일대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부화와 성장이 빨라지면 개체수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 대부분의 털파리 특징이 한꺼번에 성충으로 나온다.

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성충이 되지 못한 러브버그가 7, 8월 폭우와 습한 기온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으로 순간적 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았다.

- 전문가들은 은평구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올해 봄철 극심한 가뭄으로 부화시기가 늦어져 장마철 직전에 습도조건이 맞아서 한꺼번에 나온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대발생인지는 향후 몇 년 동안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은평구에서 대발생한 원인 및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은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이며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관찰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한다.

5. 세계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 플로리다에서도 털파리가 대거 출몰했었다.

미국선녀벌레, 아시아매미나방, 꽃매미, 흰개미 등이 러브버그처럼 장소, 때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대발생된 벌레들이다. 대발생되는 벌레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생태계의 흐름은 파괴될 것이다.

2020년 아시아매미, 2017년 꽃매미 등 계속해서 벌레들의 대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해수면이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 벌레퇴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곤충 등의 자연을 혐오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친숙해지는 생태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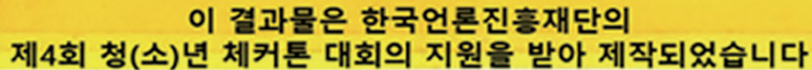
- 초등학교에서는 숲체험 등을 수업 중의 하나로 넣어서 학습하고 있다. 단순히 산책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숲체험을 통해 곤충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해하는 과정이 더 생겨서 공존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아직까지는 올바른 퇴치 방법으로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모든 해충에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때로 몰리는 벌레들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 결과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좀 더 올바른 방법을 통해 곤충의 삶과 인간의 삶이 서로 피해주지 않고, 나아가 환경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사람들이 똑똑해야 할 것이다. 작은 정보여도 사소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기사를 살펴보고, 잘못된 방법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더 매서운 눈으로 정보를 얻어 나가야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임에도 단순히 미디어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특히 자라나는 희망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더욱 언론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고 올바르게 바르지 않은 미디어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자주 접하는 습관을 통해 단단하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사랑과 전쟁



● 콘텐츠 소개

기획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러브버그.

겉모습만으로 이름이 만들어지고 악성루머처럼 사실과 다른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비단 별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정적 이야기는 좋은 소식보다 발이 더 빠릅니다. 사소한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출몰했던 리브버그라는 벌레를 통해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과 우리가 만든 환경은 부메랑같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인식개선 카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만화의 제목 및 내용

[사랑과 전쟁: Love & War (feat.러브버그)]

습한 곳을 좋아하는 러브버그는 여름이 되자 전 세계적으로 살 곳이 많아져서 여러 군데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징그럽다며 악성루머를 만들고 살충제를 만들어서 없애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 곤충학자와 러브버그를 살리기 위한 대작전이 펼쳐지는데.....

곤충학자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 소문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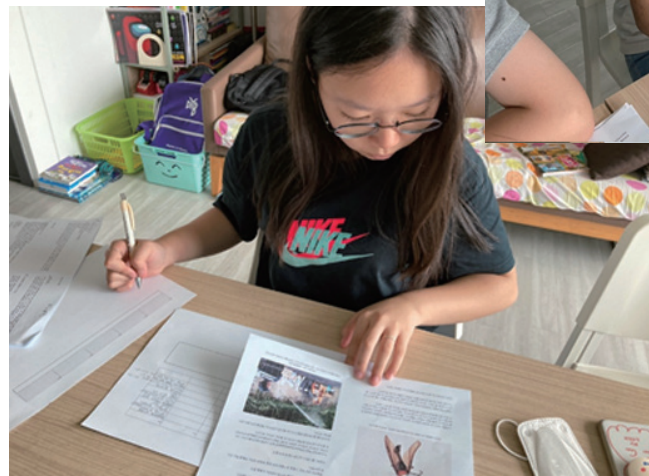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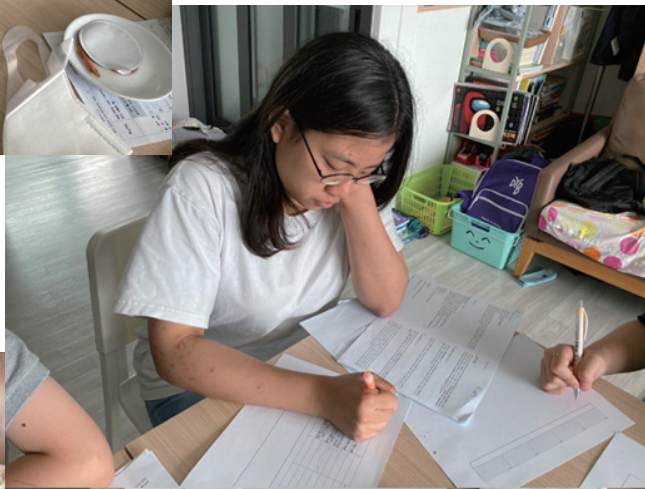
제작과정

스토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대본 점검을 위해

①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② 미디어자료들을 회의를 통해 정리한 후 ③ 우리가 보드에 쓸 내용을 정리, ④ 팀원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컷을 만들고, ④ 말풍선의 대본을 상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⑤ 큐시트를 한번 적어본 후에 옮겨서 그렸으나, 중간 중간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이 생겨서 ⑥ 보수 작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활동사진



참여소감



진아연 >>>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팩트체크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 러브버그에 관한 내용 중 알고 있었던 정보들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습득하였습니다.

곤충, 환경 관련 전문가 분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담아 좋은 답변을 해주시 것에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체커톤 대회로 인해 한층 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책임을 지고 기사를 쓰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 시간 안에 약속한 것들을 해내는 것, 사실은 그것부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도 너무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재단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훈 >>>

예전에 자동차에 붙어있을 때 끈질기게 붙어있는 신기한 생김새에 놀랐고 신기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던 벌레이고 각종 거짓루머들이 난동하는 벌레라서 여태까지 봤던 벌레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 체커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벌레와 더 친해진 기분이다.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벌레들의 개체수가 폭증하며 미간적, 건강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서윤 >>>

예선을 마치고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겨지지 않았다.

본선을 준비하면서 러브버그라는 주제는 정해졌지만 어떻게 만들고 쓰고, 그릴지 구체적인 의논을 할 때 어렵기도 했지만,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며, 완성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주고, 재미있었다고

해주어서 힘이 되었다. 새로운 점을 알게 되어서 흥미롭다 등... 설문조사 시작 전에는 설문조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도 되었었는데,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설문조사에 잘 참여해 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에 기분 좋게 설문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예원 >>>

이제 체커톤이 진짜 거의 다 끝이 났다. 설문조사가 끝나고 승훈, 아연, 서윤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뒷정리를 했다. 힘들긴 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7월 즈음에 아이들과 만나서 본격적인 회의를 했는데, 벌써 9월이 되었고 이렇게 체커톤이 끝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견 조율이 잘 되어서 힘들지 않았다. 협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다.



전문가 피드백



최우리 기자

갑자기 늘어난 곤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하려는 주제 선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툼파리류인 '사랑벌레(러브버그)'가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검색한 점도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팩트체크를 위한 과정을 잘 정리했지만 결론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곤충학자 등을 직접 인터뷰해본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달한다면 더욱 확실한 팩트체크가 되었을 겁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들은 직접 채집하고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록된 적 없는 자생종, 툼파리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왜 그런지를 물어보려는 노력을 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콘텐츠 기획안의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랑벌레를 살리기 위해 나서는 곤충학자와 시민들의 이야기는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정관념을 깨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